

이성하(2007) 문법화 연구의 현황과 전망, *우리말 연구* 21: 35-50.

Rhee, Seongha (2007) Current Trend and Prospectus of Grammaticalization Studies, *Urimal* 21: 35-50. The Korean Linguistic Association.

문법화 연구의 현황과 전망

이성하(한국의국어대)

< 차례 >

1. 문법화의 이론 개요
2. 문법화의 연구 동향
3. 문법화 연구의 최근 쟁점
4. 문법화 연구의 전망

【머리】 현대언어학에서 인지(cognition)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문법화는 언어현상을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문법화’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소개되었던 1912년 이래, 연구의 초점도 점진적으로 변화하였고 특히 1990년대 말부터는 이론적 적합성에 대한 다양한 도전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현재에도 문법화 학계의 연구동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발표에서는 이러한 연구동향을 개괄하고 특히 최근의 주요 쟁점들을 소개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의 연구동향은 두 개의 갈래로 요약될 수 있는데, 한 줄기는 문법화이론가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진 문법화 이론의 재조명 (Reflection) 운동이며 또 다른 줄기는 1990년대 후반부터 Newmeyer (1998, 2001), Joseph (2001), Campbell (2001), Janda (2001) 등에 의해 주도된 문법화 비판과 이에 대한 반론 (Haspelmath 1996, Dahl 1996, Hopper & Traugott 2003)의 움직임일 수 있다 (이성하 2007). 이러한 비판과 반론은 주로 형식주의-기능주의적 대치현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발표에서는 이와 같은 쟁점을 정리함으로써 문법화 이론의 연구범위와 그 타당성의 한계, 이론적 접근법에 따른 연구태도의 차이 등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문법화 연구 동

향에 대해 조망해 보고자 한다.

* 주제어: 문법화, 연구 동향, 연구 현황, 연구 전망, 문법화 재조명 운동, 문법화 이론 쟁점

1. 문법화 이론 개요

1.1. 문법화의 정의

문법화 이론은 언어 변화 현상을 대상으로 하여 언어 사용에 관여하는 인간의 인지작용을 탐색함으로써 언어와 인지의 상호작용과 언어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하는 이론들이다. 문법화는 그동안 여러 가지로 정의되어 왔으며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정의들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 (1) a. Meillet (1912): 완전한 자립적 단어에 문법적 특징을 부여하는 것이다.
- b. Kuryłowicz (1975[1965]:52): 문법화란 한 형태소가 어휘적 지위에서 문법적 지위로, 혹은 파생형에서 굴절형으로의 변화처럼 덜 문법적인 것으로부터 더 문법적인 것으로의 범위상의 증가 현상이다.
- c. Hopper & Traugott (2003) The change whereby lexical terms and constructions come in certain linguistic contexts to serve grammatical functions, and, once grammaticalized, continue to develop new grammatical functions

특히 문법화 현상으로 규정될 수 있는 변화들은 일방향성을 보이며 이러한 일방향성을 다양한 층위별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 (2) a. content word > function word
- b. concrete meaning > abstract meaning
- c. lexical word > grammatical word
- d. open-class word > closed-class word
- e. autonomous > dependent
- f. less grammatical > more grammatical

1.2. 문법화의 원리

문법화 현상은 특정한 원리에 따르는 것으로 많은 연구들이 주장하고 있으며 그동안 제시된 원리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원리들이 주된 원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3) a. 층위화 (Layering)
- b. 분화 (Divergence)
- c. 전문화 (Specialization)
- d. 의미지속성 (Persistence)
- e. 탈범주화 (Decategorialization)
- f. 어원결정가설 (source determination)
- g. 단일방향성가설 (Unidirectionality)
- h. 보편경로가설 (Universal Path)
- i. 평행성가설 (Parallel Reduction)
- j. 상관성가설 (Relevance)

1.3. 문법화의 기제

문법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주는 인지적인 기제들로서는 연구자마다 다양한 기제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중에서 대

표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 (4) a. 은유 (Metaphor)
- b. 환유 (Metonymy)
- c. 유추 (Analogy)
- d. 재분석 (Reanalysis)
- e. 화용적 추론 (Pragmatic Inference)
- f. 일반화 (Generalization)

2. 문법화의 연구 동향

2.1. 연구 동향 개요

초기의 문법화 연구에서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가장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5) a. 의미변화
- b. 인지적 기제
- c. 학제간/분야간 연구
- d. 보편성
- e. 이론 및 분석의 설명력
- f. 언어의 유동성과 문법의 생성
- g. 유형론적 특성

그 동안의 시대별 연구 동향을 개관하면 대개 다음과 같은 3 단계로 구분지을 수 있다.

- (6) 제1단계: 문법형태소의 어원에 관한 연구
- 제2단계: 문법과 어휘의 경계점에 있는 언어변화 현상

2.2. 최근의 주요 연구 주제

2.2.1. 문법화의 한계 및 경계점 현상

최근의 연구에서는 문법화의 한계, 즉 문법화와 비문법화의 접점에 있는 다양한 현상들에 대한 연구가 자주 연구 주제가 되어 왔다. 이 중에는 문법화와 어휘화의 경계점 현상, 음운영역에서의 불규칙성의 문제, 문법화와 기타 언어변화 현상과의 차별성, 그리고 문법화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단일방향성원리가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문법화 현상으로 분류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다양한 현상들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스페인어의 경우 -nte로 끝나는 형용사들이 있는데 이들 형태들은 라틴어의 현재분사에서 온 것으로서 이것들이 다음에서와 같이 명사로 사용되게 된 경우들이 있다.

(7) *calmante* ‘진통제’ < *calmar* ‘진정시키다’

이러한 단어에서는 원래 형용사라는 근원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단어들은 완전히 자립적인 형태로서 기능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의 문제점은 분명하게 문법적인 과정이 첨가된 최종 결과물이 어휘항목이라는 점에서 문법형태의 도출과 어휘형태의 도출 간에 경계를 설정하기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Moreno Cabrera 1998).

또한 Giacalone Ramat (1995)의 보고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문법화에서는 문법화 형태의 사용 맥락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데 반해, 이탈리아에서는 사용 맥락이 오히려 축소된 현상이 있다.

- (8) Italian. venire/andare + gerundal v. (e.g., andar dicendo; venir dicendo)

위에서처럼 원래 14세기 경의 이탈리아에서는 venire나 andare의 경우 뒤에 다양한 분사형이 함께 쓰이면서 ‘...하면서 오다/가다’의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대 이탈리아에 와서는 dire, ripetere, aumentare, peggiorare, consolidare 등과 같은 일부 단어들과만 공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법화의 일반적인 경향성에 반한다는 것이다.

2.2.2. 언어 사용

최근의 연구에서 주요한 주제로 등장한 또 한 가지는 언어의 사용이다. 즉 그동안 언어연구가 사변적으로 이루어진 데 대한 부적절성의 지적과 아울러, 언어의 분석 대상은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언어자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지향성 때문에 문맥 (context)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코퍼스를 활용한 빈도에 기초한 연구, 그리고 실제 언어 사용에서 나타나는 부차적인 문법범주 등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되었다.

특히 Bybee & Hopper (2001)에서는 사용패턴, 단어층위의 빈도효과, 구와 구문 등 다양한 빈도관련 주제들이 다루어진 바 있다. 또한 Barlow & Kemmer (2000)에서도 사용기초모형 (usage-based model)을 제시하고 언어의 총체적인 모습의 형성에는 언어의 사용이 관여하고 있음을 잘 밝혀주고 있다.

2.2.3. 의미변화의 기제

최근의 문법화 연구에서 중요한 주제로 지속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

는 것은, 문법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언어형태의 변화 중의 가장 기본적인 변화는 기능의 변화이며 이 기능은 의미 변화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입각하여, 의미변화의 기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그동안 초기연구에서부터 자주 등장하여 온 은유, 환유, 유추, 추론 등과 같은 전통적인 인지기제들보다도 Traugott (1982), Traugott & König (1991), Traugott & Dasher (2002) 등에서 주장해온 주관화 (subjectification)와 상호주관화 (intersubjectification) 현상이다. Traugott & Dasher에서는 객관적 언어, 주관적 언어, 상호주관적 언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9) a. "Objective" language: active, declarative assertion w/o speaker's viewpoint
- b. "Subjective": particularly prominent with evidentials
- c. "Intersubjective": SP/W-AD/R subjectivity (e.g. honorification)

Rhee (2002)에서는 주관화에 두 가지 중요한 기초가 있음을 주장하고 이를 인간중심성 (anthropocentricity)과 자기중심성(egocentricity)으로 보았다. 이에 대한 예로 영어의 *against*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음을 보였다.

- (10) anthropocentric subjectification displayed by *against*

Source	Subjectified Into
REPETITION	OPPOSITION/DIRECTION
DIRECTION	RECEPTIVITY
OPPOSITION	COUNTERING

- (11) egocentric subjectification displayed by *against*
 Source Subjectified Into
 STATIC OPPOSITION ALIGNMENT ALONG
 HUMAN VISUAL FIELD

또한 Rhee (2007)에서는 영어의 전치사 *for*와 *before*에 대한 의미변화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점진적인 주관화 작용이 있었음을 밝혔다.

- (12) a. *for*: [anteriority > representation > cause/reason >
 support/benefit > purpose > destination > fitness >
 advantage/disadvantage]
 b. *before*: [anteriority > visibility > prospect > superiority >
 preference].

3. 문법화 연구의 최근 쟁점

3.1. 문법화의 이론적 타당성

최근 문법화 연구와 관련한 몇 가지 쟁점들이 특별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1990년대 말부터 Newmeyer (1998, 2001)를 비롯한 일부 학자들에 의해 시작된 문법화 이론의 이론적 적합성 여부가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는데 이들 반-문법화적 학자들의 입장은 다음과 같은 주장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 (13) a. Newmeyer (1998, 2001): The alleged grammaticalization phenomena are epiphenomena and the notion is not defensible since there are counter-examples.
 b. Joseph (2001): Grammaticalization is not really a process.

Rather, it is instead an epiphenomenon, an effect.

- c. Campbell (2001): Grammaticalization is derivative, i.e. it has no independent status of its own, but rather relies on other processes and mechanisms of linguistic change which are independent of grammaticalization.
- d. Janda (2001): There in fact is no grammaticalization... What is often called grammaticalization is actually an epiphenomenon which results from the intersection and interaction of other, independently motivated domains relevant for the synchronic and diachronic functioning of language.

즉, 이러한 입장에서는 문법화란 독립된 위상을 갖고 있는 언어변화 현상이 아니라 다른 언어변화에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3.2. 단일방향성의 반례

단일방향성은 문법화현상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으로서 여러 가지 원리 중에서도 근간이 되는 원리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원리의 방향에 거슬리는 역방향의 변화들이 많은 언어에서 보고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예를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14) minor category > noun

- a. the ups and downs
- b. an out (in sports)

(15) minor category > verb

- a. You can off anybody you don't like.

- b. to out someone
 - c. to up the sale price
- (16) derivational affix > noun
- a. I dislike the use of isms.
 - b. Her ex is a monster.
- (17) quasi-form > noun
- a. an ade
 - b. the cheese-burger
 - c. the teens
- (18) semi-minor category > major category [Euphemism]
- a. '(the thing) in front' for 'penis'
 - b. '(the one) below' for 'vagina'
- (19) auxiliary > verb
- a. wotte 'would' > wotte 'wish' (Pennsylvania German)
- (20) bound > free
- a. Japanese ga 'but', kedo/keredomo/kedomo 'even though', tokorode 'by the way', tokoroga 'but', to 'just then', daga 'but', dakedo/dakedomo 'but', dakara 'therefore', and nononi 'in spite of it'. (Matsumoto 1988)
 - b. Korean light-verb-derived connectives hana, haciman, hataka, hantey, hani, haye, etc. (Rhee 1996)
 - c. Korean nominals from defective nouns ppwun, tes, cuum, kyem, calak, thi, thwusengi, kkili, kong, kwun, sayngwen, sepang, nim, cangi, etc. (고영근 1970)

또한 이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어휘화 현상들이 나타나며 이들 중에서

특히 변환(converting)이라 부르는 현상은 모든 언어에서 두루 사용되는 매우 일반적인 전략으로 보인다. 영어에서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 (21) F-word, T-square, bus, to calendar, to typo, forget-me-not, laser, etc.

이러한 변환의 예로 들 수 있는 다양한 언어현상은 역문법화의 논의에서 자주 예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논의는 김혜리 (1998), Kim (2001), Ramat (1992), Giacalone Ramat (1998), 등을 참조할 수 있다.

3.3. 문법화 이론들의 재평가

문법화 이론에 대한 다양한 반론에도 불구하고 문법화 이론가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상기시키면서 문법화 이론이 언어현상을 분석하는 이론틀로서, 그리고 언어에 투사된 현상을 통해서 인간의 인지와 언어적 표상을 확인하는 데에 중요한 이론틀이 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반론에 대한 재반론으로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언급들을 참고할 수 있다.

- (22) a. Haspelmath (1996): Alleged counterexamples are 'conversions'. Unidirectionality is valid. Grammaticalization shows pervasive patterns found frequently across non-related languages. (cf. Chomskyan literature; Battye & Roberts, 1995 "a random walk through the space of possible parameter settings")
b. Dahl (1996): Grammaticalization is unidirectional in about the same sense as biological processes such as growth,

maturation, and aging are. As we grow up, we become taller; in old age, we may shrink a little. However, we would not expect a child to start becoming shorter and shorter and finally return to its mother's womb. Calling grammaticalization as an epiphenomenon is like saying that since love and sex can occur without each other, they are totally different phenomena. To support such a claim one has to show not only that the processes can occur independently but also that they are unrelated even in the well-documented cases where they show up together.

- c. Hopper & Traugott (2003): Grammaticalization is a functionalist theory—a theory about the interaction of language and use; the questions posed in functional and formal theories are not identical. Grammaticalization is a theory with dual prongs: diachronic and synchronic. Many counterexamples are covered by degrammaticalization, lexicalization, and exaptation.
- d. Heine (2004) Grammaticalization is a recurrent development, in that a given form may be, and not infrequently is, grammaticalized more than once. Whereas grammaticalization is based on mechanisms that are the same across languages, the alleged counter-directional processes are not. Grammaticalization is frequent and affects the syntax of the language, unlike those alleged counterexamples.

4. 문법화 연구의 전망

지금까지의 연구 흐름을 고찰해 볼 때 앞으로의 문법화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들이 문법화 연구의 주요 주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23) a. 지금까지 많이 연구되지 않은 소수언어들에 나타나는 문법화 현상
- b. 코퍼스를 통하여 언어사용에 기초한 화용과 언어사용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법화 현상
- c. 문법화 현상과 역문법화 현상, 그리고 이들을 특징지을 수 있는 단일방향성 원리의 검토
- d. 문법성의 증감을 판단할 수 없는 문법적 변화의 문법화론적 위상 문제 논의
- e. 범주내적 문법변화에 대한 문법화론적 위상 문제 논의

참고 문헌

- 고영근. 1970. 현대국어의 준자립형식에 대한 연구. *어학연구* 6.1.
- 김혜리. 1998. 영어에 나타나는 역문법화 현상. *영어사* 6: 147-162.
- Barlow, Michael & Suzanne Kemmer. (eds.) 2000. *Usage Based Models of Language*. Stanford: CSLI Publications.
- Bybee, Joan L. & Paul Hopper. (eds.) 2001. *Frequency and the Emergence of Linguistic Structure*.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Campbell, Lyle. 2001. What's wrong with grammaticalization? *Language Sciences* 23: 113-161.
- Dahl, Östen. 1996. A posting on *Linguist List* 7.1158. August 18, 1996.
- Giacalone Ramat, Anna. 1995. Sulla grammaticalizzazione di verbi di movimento: andare e venire + gerundio. *Archivio Glottologico Italiano* LXXX: 168-203.
- Giacalone Ramat, Anna. 1998. Testing the boundaries of grammaticalization. In *The Limits of Grammaticalization*. 107-128. ed. by Anna Giacalone Ramat & Paul Hopper.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Haspelmath, Martin. 1996. A posting at *Linguist List* 7.1158. August 18, 1996.
- Heine, Bernd. 2004. On the nature of the unidirectionality principle in grammaticalization. Special invited lecture, Language Research Institut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October 22, 2004, Seoul, Korea.
- Hopper, Paul J., & Elizabeth Closs Traugott. 2003[1993].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anda, Richard D. 2001. Beyond "pathways" and "unidirectionality": on the discontinuity of language transmission and the counterability of grammaticalization. *Language Sciences* 23.2-3: 265-340.
- Joseph, Brian D. 2001. Is there such a thing as "grammaticalization?" *Language Sciences* 23: 163-186.
- Kim, Hyeree. 2001. Remarks on the unidirectionality principle in grammaticalization. *Folia Linguistica Historica* 22: 49-65.
- Kuryłowicz, Jerzy. 1975 [1965]. The evolution of grammatical categories. In *Esquisses Linguistiques II*. ed. by Coseriu. Munich: Fink. 38-54.

- Matsumoto, Yo. 1988. From bound grammatical markers to free discourse markers: History of some Japanese connectives. *BLS* 14: 340-351.
- Meillet, Antoine. 1912. L'évolution des formes grammaticales. *Scientia* 12. (Reprinted in Meillet. 1948. *Linguistique Historique et Linguistique Générale*. 1. 130-148. Paris: Edouard Champion.
- Moreno Cabrera, Juan C. 1998.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grammaticalization and lexicalization. In *The Limits of Grammaticalization*. 211-228. ed. by Anna Giacalone Ramat & Paul Hopper.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Newmeyer, Frederick. 1998. *Language Form and Language Function*. Cambridge: The MIT Press.
- Newmeyer, Frederick. 2001. Deconstructing grammaticalization. *Language Sciences* 23: 187-229.
- Rhee, Seongha. 1996. *Semantics of Verbs and Grammaticalization*. Ph.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Seoul: Hankuk Publisher.
- Rhee, Seongha. 2002. Semantic changes of English preposition against: A grammaticalization perspective. *Language Research* 38.2: 563-583.
- Rhee, Seongha. 2007. What is it for if it's before me?: Subjectification and grammaticalization of English for and before. Paper presented at 2007 Summer Joint Conference, LSK, LSJ, & SEEK. June 19, 2007,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 Traugott, Elizabeth C. & Richard B. Dasher 2002. *Regularity in Semantic Chan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raugott, Elizabeth Closs, & Ekkehard König. 1991. The semantics-pragmatics of grammaticalization revisited. In Traugott and Heine 1991. vol 1: 189-218.

이성하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대학 영어학과

(02) 2173-2521, 3171

srhee@hufs.ac.kr

접수 일자: 2007. 8. 25.

게재 결정: 2007. 10. 15.

<abstract>

Current Trend and Prospectus of Grammaticalization Studies

Seongha Rhee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Grammaticalization as a research framework has been increasingly receiving attention from scholars as part of the increased interest in human cognition in modern linguistics. However, since its first introduction of the term 'grammaticalization' in 1912 by Anoine Meillet, the research focus in grammaticalization has undergone gradual shift continuously, and from the 1990s, in particular, the grammaticalization framework was faced with the challenges of the scholars in the formalist paradigm who raised doubts about the theoretical validity of the framework. This attack still affects the research trends in grammaticalization in the form of defending the theory on the one hand and of reflecting and reassessing the theory on the other. This paper describes the current trend in grammaticalization research and evaluate the claims centering around the anti-grammaticalization issues. The two major trends in recent research are the movement of reflection on grammaticalization theory, and the pro-and-con arguments regarding the grammaticalization framework, led by Newmeyer (1998, 2001), Joseph (2001), Campbell (2001), Janda (2001) on the anti-grammaticalization side, and Haspelmath (1996), Dahl (1996), Hopper & Traugott (2003) and numerous others in the pro-grammaticalization side. This controversy is closely related to the long drawn-out opposition of the formalist vs. functionalist research orientations. This paper introduces this controversy, and in so

doing, attempts to redefine the realms of research, to identify the limit of the validity of grammaticalization theory, to present the different orientations due to the differing research paradigms subscribed, and to present the prospectus of the future grammaticalization research.

* Key words : Grammaticalization, Research trend, Current trend, Research prospectus, Reflections on grammaticalization, Controversies on theoretical validity